

광주시, 산업정책 새바람... AI 등 신기술 융합 3대 뉴딜 구체화

지역산학연합회 역할 강화·시민주도 사업 확대 인공지능·기후위기·미래자동차 전환 대응 인재양성

광주시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 실현을 위해 지역산업정책을 기업중심, 시민참여, 일자리 중심의 미래 선도형 경제구조로 대전환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노사상생도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타 지역을 압도하는 '인공지능 기반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올해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기업을 위한 신시장 개척 및 사업다각화 지원방안을 마

련하고, 인공지능(AI), IoT,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융합한 미래 핵심동력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역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초광역협력사업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웨이징 휴먼 헬스케어밸리조성 시범사업(광주·전남·전북)을 시작으로 초광역에너지공동체 RE300(광주·전남·전북), 3대 핵심 거대연구시설인 국가고자기장 연구소(광주·울산·강원) 구축 계획을 완성하는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시는 광주형 AI 3대 뉴딜로 대표되는 신산업 안착에도 집중한다. 지난해까지 착실하게 토대를 다져온 광주형 AI 3대 뉴딜은 일대에서 체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디지털뉴딜은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2단계 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고, 연말까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집적단지 조성 공정을 65%, 인공지능(AI) 창업캠프 제3호관 개관 등 기업과 인재가 찾아오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낸다는 복안이다.

그린뉴딜은 롯데마트(2.5MW)·제2순환도로(6개소 4.7MW) 태양광 확대, 에너지데이터를 종합 관리하는 실시간 에너지정보플랫폼 구축과 함께 분산전원 기반 전력거래라는 새로운 전력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에너지자립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휴먼뉴딜은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캐스퍼 생산안정화, 제2의 광주형 일자리 발굴 등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는 각종 산업 지원정책도 기존 기관 중심 지원에서 지역기업·시민참여 정책으로 대전환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역기업·유관기관·대학·시민과 소통하며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지역산학연합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청년 유출방지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제2호 시민햇빛발전소 구축, 에너지자립마을 거점센터 10개소 추가 설립, 에너지파크 시민활동가 양성 등 시민주도 사업도 확대한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지역전략산업(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인재양성 고도화 사업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인공지능 기업 133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광주에 사무소 등을 여는 추세에 맞춰 인공지능사관학교 인원을 180명에서 330명으로, 교육 기간을 7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순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2022년은 인권도시 광주가 인공지능을 기반한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그린스마트 시티 실현으로 미래산업도시로 전환을 선도하도록 광주공동체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지사, 진도 물김위판장 방문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오전 진도군 의신면 접도 수품항 물김위판장을 방문, 수협관계자로서 진도군 김 생산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진도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김은 게르마늄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 맛과 향이 독특하고 품질이 우수해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전남도, 김치산업 발전 원년... 143억원 집중 투자

생산시설 현대화 등 6개 사업 지원

전남도가 올해를 도내 김치산업의 발전 원년으로 삼고 김치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소비 촉진, 수출 증대를 위해 6개 사업에 143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위생관리 강화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시설 등 '김치생산 시설 현대화'에 9억4000만원, 배추, 양파 등 주산지 장점을 활용한 김치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기 위해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에 1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김치 생산비 절감장비 구입'에 9억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재료 구입비'에 12억원, '김치 발효중군 보급사업'에 6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 배추 등 원료 구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치 원부재료 매입 자금' 12억원을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290억 원 규모 '김치 원료공급단지'도 유치해 김치산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산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아 소비 촉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 5022개소를 달성한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실적을 연말까지 6000개소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밖에 김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온라인 판촉도 강화한다.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jinmall.kr)' 등을 통한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추진, 절임배추 및 김치 판매 목표액을 지난해 9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상향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해는 김치 생산설비 자동화와 안정적 원료수급 체계 구축 등에 집중 투자해 내수 소비와 함께 수출도 확대하겠다"며 "대한민국 김치의 본고장인 전남이 앞장서 김치산업을 미래 지역발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광주시, 350명 공모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택시의 친절도, 안전운행 여부, 대중교통 시설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대중교통 시민모니터단 350명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월7일까지며, 광주 지역 시내버스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4일 게시되는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이메일(eownd123@korea.kr) 또는 우편(광주시 서구 내방로 111 대중교통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다문화가정 산모, 모국 출신 돌보미가 돌본다 장애인 출산·양육 돕는 가사도우미 파견 서비스도

광주시는 "다문화 가정 산모 돌봄서비스와 장애인 출산·육아를 돕는 가사도우미 파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다문화가정 산모 돌봄서비스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결혼 이주·고려인 여성이다.

일일 5시간 이내, 총 70시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산모 돌보미는 산모의 모국 출신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영양 관리,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돕고 육아 정보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산모 돌보미로 활동할 결혼 이주·고려인 여성 3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국 거주 3년 이상, 자녀 출산 후 1년 이상 여성으로 한국어능력 시험 3급 이상 자격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월 4일까지며, 2월 7일 면접을 통해 선정한다. 산모 돌보미로 선정되면 35시간의 양성 교육을 수료한 후 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산모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만1000원의 수당과 교통비를 제공한다.

최선영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친정엄마가 가장 그리운 출산 시기에 언어와 문화적 이질감으로 힘든 이주여성에게 산모 돌보미가 친정엄마처럼 따뜻한 보살핌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장애인의 출산, 육아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를 파견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주소를 두고 출산(예정자 포함)하거나 영·유아를 키우는 여성 장애인이다. 출산과 관련해서는 임신 관리, 산후조리, 신생아 관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8개월 이하 또는 2인 이상 자녀가 있으면 양육·놀이·학습 지원 관련 서비스, 중증 독거 여성장애인은 청소와 가사 등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주 5회(양육은 4회)까지 하루 4시간, 두 달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광주 서구청장애인복지관은 지난해에도 377정에 1451건 도우미를 파견했다. 이용 희망자는 서구청장애인복지관에 전화(062-710-3020), 팩스(062-710-3024),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21일부터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전남도가 21일부터 1년 동안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접수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 친척과 진상규명에 관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국 시도, 시·군·구, 재외공관에 진상규명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희생자·유족 신고는 여순사건 희생자나 유족으로 결정을 받으려는 국민이 전남도와 도내 거주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 희생자·유족 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사항을 TV·라디오 방송, 신문과 SNS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플래카드,

전단지, 포스터 등을 도에서 일괄 제작해 22개 시·군, 297개 읍면동에 배부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읍면동에 신고·접수처를 마련,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실조사단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이에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업체를 지난 14일까지 시·군, 읍면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총 6회 걸쳐 440여 명에게 업무지침을 교육했다.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 조사요원 2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2월 3일부터 근무하도록 하고, 앞으로 50명까지 확대해 채용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흥망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학부 정시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정 시
인문사회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신 학 과	31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19
사범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	6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총 계			70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우체원고시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취득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한국어교육학과	○○	○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2. 1. 10(월) ~ 1. 21(금)
- 전 형 일: 2022. 1. 25(화)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씨로 36